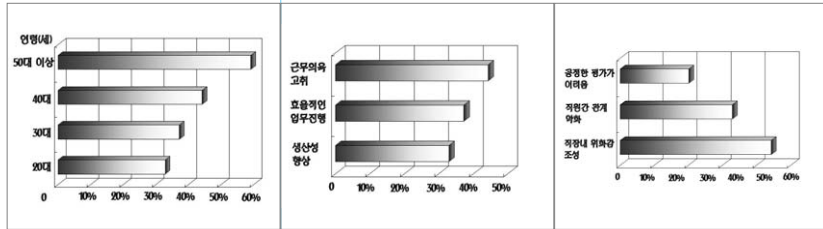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 ■■■

직무급제 도입 찬성 (직장인 38.7%)

온라인 취업사이트에서 직장인 1,342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직무급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8.7%가 ‘찬성한다’ 라고 응답했다.



어느 신문기사에 실린 2006년 새해 소망을 묻는 설문에서 20대의 경우 78.7%가 ‘취업’이라고 응답한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는 35만 4000명(’05.8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의 42%에 달한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고령층의 실업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직무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무급제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반대 개념으로 개별업무에 가치를 부여하여 직원 개개인의 업무 기여도와 성과에 따라 기본급 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CJ, 삼양사, 태평양, 오리온 등 일부 사기업이 실시하고 있으며, 공기업으로는 KOTRA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최근 한 취업사이트에서 직장인 1,324명을 대상으로 직무급제 도입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59.1%, ‘40대’ 44.2%, ‘30대’ 37.2%, ‘20대’ 32.9%로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30.4%, ‘남성’ 41.7%로 남성의 찬성비율이 더 높았다.

직무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근무의욕이 고취되기 때문에’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하므로’ 21.8%, ‘생산성이 높아져 회사에 도움이 되므로’ 20.8%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직무급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44.3%가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서’를 꼽았으며, 그 외에 ‘지나친 경쟁으로 직원간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32.9%,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해서’ 20.1% 등이 있었다.

‘현재 직무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3.6%에 불과했으며 직무급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도 54.1%나 되어 직무급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